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기여

충주시 탄금대로에 위치한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다양한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충주시의 생활인프라 개선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해 아동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손 나눔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비혼모, 다자녀 가정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한, 공단이 설립된지 10여년이 채 되지 않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여 여러 방면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어 충주시민 전체가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광선 이사를 만났다.



충주시 탄금대로에 위치한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선)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중시하며,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선정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보호, 소외계층 지원, 지역 문화 행사 후원 등 사

시민행복 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율적 관리·운영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공단의 의지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헌혈, 봉사활동 릴레이에 참여하며 지역 농촌의 일손을 돕고 연탄 나눔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랑의 나눔옷장' 운영과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캠페인'과 같은 창의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새롭게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

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난관은 없었는지?

공단은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근무 형태가 각기 달라, 여러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한곳에 모아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되곤 한다.

고객의 생활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사회공헌 업무에 참여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충주 시민의 숲 사업 조성 성공 기막식.



사랑의 나눔옷장 캠페인 전달식.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동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손 나눔뿐만 아니라,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비혼모와 다자녀 가정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한, 충주에서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 등 참여형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충주 시민의 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기부활동을 실시했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공단이 설립된 지 10여년이 채 되지 않아 기관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단의 존재 가치를 알려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충청북도 주관 '2020년 생산직 일손 봉사 일반단체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공단은 시민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기존의 단순한 사회공헌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재미와 의미가 결합된 사회공헌활동은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충북도, 난자 냉동 지원사업 국비지원 확대

전국 최초 시행, 내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추진

충북도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5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포함해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냉동한 생식세포를 임신에 이용할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난자 냉동 시술은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존하고 향후 임신을 원할 때 사용하는 가임력 보존 방법으로 미혼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난임 부부에게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난임 정책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미혼 여성을 위한 지원이 없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 증가, 여성의 사회적역구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8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 시행하게 됐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지난 3년간 시술 건수, 시술 방법, 비용 등을 자문하며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끌어냈다.

난자 냉동 시술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평균 400만원이 소요되어 아이를 원하지만 비용 부담을 느끼는 미혼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난소기능이 약한 경우뿐만 아니라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아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30살 이상이면 소득 기준 및 난소기능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지난해 9명, 올해 17명을 각각 지원했고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043-220-5936)에서 수행 중이다.



김영현(왼쪽 두번째) 충북지사기 기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두꺼비시장 '일하는 밥퍼' 작업장에서 노인들과 농산물 전처리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충북도, 취약계층 대상 '일하는 밥퍼' 사업 시행

시장 유통 농산물 전처리 작업, 온누리 상품권·현금 지급

충북도가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이른바 '일하는 밥퍼'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일하는 밥퍼' 실버봉사단은 지난 11일 청주 육거리시장 등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무료 급식을 이용해온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마늘 쪽지 따기'와 '고구마 순 까기' 등 농산물 전처리 작업에 대한 최대 2시간의 봉사 기회를

주고 1만원 가량의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을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 정책이다.

'일하는 밥퍼 실버봉사단'은 연말까지 매주 3~4차례 시범 사업을 통한 효과와 확대 가능성 등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도내 전역에 확대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는 자존감 회복과 소외감 해소가 가능하고, 전통시장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으로 새로운 소비층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행복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지금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행복지속 솔루션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

- * 대교와 전문가 그룹이 공동 개발한 시니어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 * 전문 선생님의 1:1 방문 케어로 인지 강화와 정서까지 맞춤 관리
- * 회원 대상 연구 결과, SMCQ(주관적 기억 감퇴) 개선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 회원들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



뇌 건강은 초기 관리가 핵심! 건강할 때 미리미리 트레이닝 시작하세요



지금 프리미엄 음성 인공지능 인지 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 가격 월 120,000원 주 1회(월 4회)
- 서비스 주 1회 20~30분 1:1 방문케어 서비스
- 구성 교재 4권+교구 1종 월 1회 학습 가이드

- 1·3주차 인지 기능 집중 훈련 집중 활동을 통한 뇌기능 향상
- 2·4주차 사회 적용과 정서적 안정 다양한 교구 활용으로 생활 인지 기능 향상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

080-222-0909

청주시, 긴급보육 어린이집 확대 운영

이용 예약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청주시는 어린이 긴급보육 수요 증가에 맞춰 시간제보육 통합반과 야간·휴일반 운영을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새로 개설된 서비스는 통합반 14개소 22개반, 야간·휴일반 2개소 8개반이다. 기존에는 시간제 독립반만 운영했으나, 이번 신규반 개설로 보육 서비스 제공

량은 총 30개소 45개반으로 확대됐다.

시간제보육이란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시간제보육 독립반, 통합반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

고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가 대상이며, 야간·휴일반은 충북도내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학 전 모든 아동이 대상이다.

이용 예약은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및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육료는 시간당 2000원으로 월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독립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통합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야간·휴일반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민경아 여성가족과장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갈수록 양육 공백에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군보건의료원 전경.

단양군보건의료원, '보훈병원 지정위탁병원' 선정

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 및 본인부담금 국비 환급

단양군은 군 보건의료원이 10월부터 '보훈병원 지정위탁병원'에 지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정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유공자에게 진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지난 7월 개원한 단양군보건의료원은 9개 과목 14명의 의료진이 상주·진료한다.

위탁병원은 지정 12개월 이후부터 매년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로서 민원인이 느끼는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훈병원 지정위탁병원 운영으로 본인부담금을 국비부터 매년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제천시, 출산 장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복원 시술 희망 대상자 시술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제천시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피임시술자 중 임신을 목적으로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제천시에서 시술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이 다자녀 임신을 장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더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bc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www.043w.or.kr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특화 콘텐츠 개발 착수

어린이용 트레이닝존, 성인용 직업체험 배움터 설계

청주시는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콘텐츠 구축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내년 12월 준공되는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디지털 빌리지 건물 2개층을 유아부터 초등,

청소년부터 성인 공간으로 나눠 맞춤형 체험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유아부터 초등 공간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발달재활 프로그램실과 대근육 트레이닝존 등을, 청소년부터 성인 공간에는 디지털 배움터를 각각 구성 중이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 디지털 재활서비스 시설인 이곳은 흥덕구 신봉동 500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9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청주만의 차별화된 재활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장애인 권리와 주민 책무 등 명시

음성군은 서효석 음성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전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

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군수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주민의 책무, 시행계획,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실행 근거 교육과 홍보 등을 담았다.

음성군수가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 군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상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충주시, 콜택시 자동결제시스템 도입 정식 개시

호출 앱에서 선택하면 운임 자동결제

충주시가 충북 도내 최초로 시민과 방문객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주콜택시 자동결제시스템을 도입,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으로 승객은 기존 승차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에다가 추가로 자동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



충주콜택시 자동결제시스템 어플.

충주콜택시 자동결제시스템 어플. 요즘 시비나 요금 결제 관련 불편이 개선돼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호응'

13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청소년 월 13만원 지원

제천시는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천시 저소득층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교육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한 청소년은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을 통해 매달 예체능학과 스테디카페를 부담없이 다닐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사업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족) 청소년 200명을 연초에 선정하여 11개월간 월 13만원씩 바우처카드에 충

전 지급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된 직업기술·예능·기예학원 및 스테디

김창규 제천시장은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소질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꿈을 이루어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리얼,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유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캔,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영동군 정영철 군수가 지난 14일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추진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동군,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확정

100병상 규모 재할 전문 군 단위 최초 · 전국 9번째

영동군은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건립이 확정돼 지난 1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3자 협약식을 개최했다. 영동군은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유치에 대해 2020년 12월 유치계획을 시작으로, 추진방향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이에 보훈부는 지난해 11월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영동군 회동리 333번지일원(구 농

업기술센터부지)으로 건립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3월 국가보훈부, 충청북도, 영동군 3자 간 건립에 따른 실시협약을 문서로 체결했다. 이어 7월에는 사유지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 영동군 정영철 군수 3자가 도청에 모여 협약서에 최종 서명하고 건립에 따른 상호 협력 의지를 견고히 다졌다.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은 부지면적 5894㎡에 연면적 7000㎡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427억원이 투입돼 장기요양 100병상이 마련된다. 사업주체는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며, 전액 국비 사업이다. 사업시작 전 부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국립보훈요양원은 현재 전국에 8개소가 있다. 영동군에는 아홉 번째로 건립되며, 이는 군 단위 최초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영동군 건립을 확정된 국가보훈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국립보훈요양원이 건립되면 영동군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지역경제 · 관광 활성화는 물론, 인근 소외지역 보훈대상자와 노인들까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은 2025년 영동군에서 부지정리를 마치고, 국가보훈부에서 이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7년 말에 개원 예정이다.

영동군, 돌사진 지원사업 '첫 시행'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아기 대상 10만원 지원

영동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새로운 기금사업으로 '인생 첫 컷(첫 돌 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인생 첫 컷' 지원사업은 아기의 첫 돌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아기가 대상이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출생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은 첫 돌 사진 촬영비로 10만원이 제공된다.

신청은 아기의 첫 돌을 전후한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 · 면 사무소에 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억4000만원을 모금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 지역아동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인생 첫 컷 지원사업 등을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은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실생활에서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 '지역아동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은 지역 내 아동들의 성장과 학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괴산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

부모 24세 이하 가정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괴산군은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63%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의 청소년 부모 가구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정이다.

해당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거주

지 읍 · 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괴산군 여성정책팀(☎043-830-3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군, 9월 출생아 수 올해 최고 기록

저출생 극복의 새로운 희망 전년 동월 대비 11명 증가

증평군은 9월 출생아 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증평군의 출생아 수는 25명으로 전월(18명) 대비 7명(38.89%) 증가, 전년 동월(14명) 대비 11명(78.57%) 증가했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로, 이목을 끈다. 군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주력해온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 군청사 내 행복돌봄나눔터(제1호)를 조성하고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특화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모두가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 돌봄전담 조직 신설 및 증평군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차별화된 돌봄 통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출생아 증가율 전국 4위, 인구 · 출생아 증가율

충북 도내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도내 유일하게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24 대한민국 지방지킴이 인프라 개선 대상"도 수상했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증평군이 꾸준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한 아동, 부모가 만족하는 빈틈없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아이 낳아 기르기 걱정 없는 도시 증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청소년복합문화공간 명칭 '틴하우스'

청소년의 집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감도.

옥천군은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의 명칭으로 '틴하우스'를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군은 명칭 선정을 위해 청소년 참

여기구 위원들로부터 명칭 후보 25건을 접수했다. 상징성, 창의성, 대중성, 적합성 등을 고려한 내부 심사를 통해 5건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최종 후보 5건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25일까지 청소년 대상 온 ·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총 득표수 1374건 중 490표(35%)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틴하우스'를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틴하우스'는 청소년들의 집이라는 뜻으로 청소년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고, 오가며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틴하우스의 명칭처럼 청소년들에게 인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옥천읍 중심지에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옥천군이 창의어울림센터 2층(금구공영주차타워 앞)에 조성했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커뮤니티공간(토비), 게임룸, 댄스연습실, 학습공간, 스터디룸 등이 있다.

보은군, 스마트빌리지 보급 · 확산사업 공모 선정

공모로 국비 확보... 영상 · 헬스케어 플랫폼 등 갖춰

보은군은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지역별 현안을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1억원, 도비 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해 2025년

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지역사회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경로당이 건강과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간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 경로당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영상통합 플랫폼 구축,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생활정보 · 안전 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 여가 ·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노인 복지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선정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지난달 24일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 권익침해를 당하는 경우, 권익지원센터(☎1800-725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리·노무·법률 등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후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 상담 접수를 실시하는 등 접수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과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상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강현덕 대수 권익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도입 두 달... 1257건 상담 진행

전화·카카오톡 채널 등 운영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 가운데 제도 시행 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 발생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개인에게 맡겨졌던 출

산과 출생 등록, 보육 등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전국에 16개의 상담기관이 설치돼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기임신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 전화 1308번을 개설했으며, 카카오톡 '위기임신부상담' 채널에서도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보 취약계층 위기임신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 민간 협력을 통해 상담·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두 달간 423명의 위기임신부에게 1257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29명이다. 관련 예산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증액한 결과 52억원이 반영됐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이달부터 복지로 누리집·앱으로... 심리상담 8회 제공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과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등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대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모두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한편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 수준을 점검하여 향후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지난 2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주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도 주변의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 및 제공 경험을 청취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주간 '제1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편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 수준을 점검하여 향후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지난 2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주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동네의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본인부담↓

연간 최대 8만원 상당 포인트 제공

보건복지부는 전국 동네병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1년 주기로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일상에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지만 이전에는 질환 진단,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뤄졌었다. 이번 서비스는 동네의원에서

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이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에서 20%로 낮춰 적용한다.

또한,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는 건보공단 앱(The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하거나 건보공단 지사 팩스나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적당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 앱(chak)에서 건강실천카드를 신청해 카드를 받은 뒤 의원에서 결제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고시와 안내자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독사의 절반은 50~60대 중장년층

지난해 고독사 3661명 100명당 1.04명 사망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올해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근거 기반 정책추진을

위해 2022년 첫 조사 이후 2년 만에 다시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자는 35만2511명으로, 이 중 고독사로 인한 사망은 3661명으로 2.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전년보다 고독사 발생이 늘고 있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은 5.6%로 연평균 증가율 8.8%보다는 둔화했고, 전체 사

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는 지난해 1.04명으로 2021년(1.06명) 대비 줄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는 2021년 1.06명, 2022년 0.95명, 지난해 1.04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가구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여성보다 남성의 고독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남성 고독사는 3053명(84.1%)으로 여성 579명(15.9%)보다 5.3배 많았다. 2022년 경우에도 남성 고독사는 2970명(84.2%)인 반면 여성 고독사는 557명(15.8%)이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60대가 1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097명)가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502명), 70대(470명) 순이었으며 50대와 60대 남성 고독사의 비중은 2022년 54.1%, 지난해 53.9%로 절반에 육박했다.

또한, 연령대별 고독사 비중을 보면 60대가 31.6%로 가장 많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50대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22년(31.4%)에 이어 지난해에는 60대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비중은 2022년 30.4%에서 지난해 30.2%로 소폭 줄었다.

복지부, 자살률 감소 위해 사회 전 분야와 협력

2023년 자살률 27.3명...전년대비 2.2명 증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8.3% 증가한 1만39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8월에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사회 전 분야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번호를 109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9월 10일부터는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마들렌'이라는 SNS 상담서비스를 개통해 온라인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했다.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성별로는 전년 대비 남성 자살률과 여성 자살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13.6%), 50대(12.1%), 10대(10.4%) 순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자살률 증가가 사회

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 등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6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사회 전 분야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59.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70대(39.0%), 50대(32.5%), 40대(31.6%), 60대(30.7%) 순으로 높았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청주복지페스티벌 '복지 앙상블' 성황



청주복지페스티벌추진단은 지난 11일 2024년 청주복지페스티벌 '통합 10년 청주 복지 앙상블' 개최 후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 청주시 10주년 기념' 화합의 장 마련 마을복지사업 성과 공유·다양한 프로그램

청주복지페스티벌추진단(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주복지재단)은 지난 11일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2024 청주복지페스티벌 '통합 10년 청주 복지 앙상블'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 청주시 10주년을 맞아 지역 내 보건복지 기관과 시민 간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53개 보건복지 기관과 단체, 그리고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복지박람회가 열렸다. 참여한 시민들은 여러 기관단체의 다양한 보건복지정보를 얻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 및 생산품을 구매하였으며, 청주시 43개 읍면동 마을복지사업의 성과도 확인했다. 또한 다양한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태권도무 및 격파 시범(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 베트남 전통춤(청주시가족센터), 스윙 스타트 댄스(청주경노인복지관

등 9개팀의 공연은 한 공간에 있던 사람들을 함께 어울리게 했다. 이외에도 청주복지대상 1명,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15명과 마을복지 유공자 52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장을 수여한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청주시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에서 지난 17일 개최한 '2024년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충북도, 노인일자리 박람회 다양한 사회 기여 방안 모색

한국시니어클럽협회(협회장 조범기)는 충북 청주시 소재 청남대 일원에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 '2024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충청북도가 후원한 행사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사회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르신들과 관계자들은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범기 협회장은 "올해도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노인일자

리사업이 20주년을 맞이한 해로, 시니어클럽 역시 지난 24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2003년 4월에 설립되어 노인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 회원 기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충북지회는 청주 6곳을 포함해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 음성 각 1곳 등 총 1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즐거자 청춘' 어르신 나들이

지역사회 연대로 추억 선물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태순)은 지난달 27일 제천 청풍호로 '즐거자 청춘' 어르신 나들이를 지역사회와 함께하여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80명이 참여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며,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로 자리매김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달 27일 진행한 '즐거자 청춘' 어르신 나들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후일에는 국제로타리3740지구 북청주로타리클럽(회장 이항우), 청주주님의교회(담임목사

최현석), 삼선사(대표 이영래), 원시스(대표 조현희)가 함께 하여 풍성한 나들이가 될수 있도록 지

원하였고, 북청주로타리클럽, 청주디딤돌봉사단,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었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1년에 단 한 번 가는 나들이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항우 회장은 "매년 어르신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할 수 있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북청주로타리클럽이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홍보 서포터즈가 강원 영월군 단풍로를 찾아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홍보하고 있다.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서 만나요"

홍보 서포터즈 활동 마무리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종철)는 내년 제천에서 펼쳐지는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센터는 올해 4월부터 단양군을 시작으로 6월 경기 의왕·광명시,

8월 강원 정선군, 9월 평창·영월군 등의 주요 관광지와 다중 집합장소를 찾아 내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홍보했다.

이번 홍보활동에는 센터 자원

봉사자 143명이 함께 했다.

'홍보 서포터즈'는 전국 각지의 축제·행사장과 다중 집합 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해 그곳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천시의 주요 관광지와 행사·축제 일정을 홍보하는 활동이다.

박종철 센터장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준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제천시가 널리 알려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21년부터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30년도 행복 공동체로"

개관 30주년 기념식 개최 주민 복지 증진 중심 역할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은영)은 지난 16일 청주시 용정동 S컨벤션에서 지역주민, 사회복지관 유관기관, 후원자, 봉사자 그리고 월드비전 관계자 200명을 초대하여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 청주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민들의 복



용암종합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지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청주시와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며, 청주시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을 30년동안 운영

한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복지관과 함께 꿈을 이루고 있는 청소년의 클라리넷 연주와 지역주민 수기 발표를 진행하여 참여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충북사회복지관협회, 복지공동체 활성화



충북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한 '충북 사회복지관의 날'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날 기념행사

충북사회복지관협회(협회장 김태순)가 주최한 '충북 사회복지

관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달 24일 개최됐다.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연인 이번 행사는 충북 도내 12개 사회복지

기관의 종사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여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충북사회복지관협회의 홍보영상 상영과 더불어 사회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상하고 2부에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화합 및 역량 강화 활동으로 진행했다.

매년 진행되는 행사지만 올해는 SK하이닉스,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사단법인 빛가운데 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행복한 임신 · 출산 · 양육 위한 국가지원 확대

임신 · 출산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다동이 가족의 목소리 반영 임신 · 출산 · 양육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국내 최초 다섯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임신 · 출산 ·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동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난임 · 다동이 지원대책(2023.7.27)'을 발표해 올해부터 다동이 가정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앞으로도 다동이 가족의 임신 · 출산 · 양육 부담 완화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 · 의결하고,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농도농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될 '일 · 가정 양립할 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정부지원 확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강한 임신, 출산위해 건강보험 지원 강화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체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되었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를 것을 고려하여,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 기준금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차상위는 100%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시술 본인부담 완화 및 지원횟수 확대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여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되어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 · 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 · 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준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임신 · 출산 관련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

저출생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2024년 1월부터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였으며, 다동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 · 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그간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하였고, 향후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20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5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다동이 가정 대상 국가지원 지속 확대

■임신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다동이 임신은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와 달리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동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이전에는 태아당 일괄 140만원이었으나, 현재 태아당 10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다동이 임신 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고위험 임신부(다동이 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이전에는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했으나, 소득기준 폐지로 개선 후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다동이 임신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며, 필수 검사항목도 많아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33주부터는 매주 태아검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며, 현장에서 법에 따라 검진시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도 강화중이다.

* 건보공단의 임신 · 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 · 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 등)하는 서비스 조산 위험 등으로부터 다동이 임신부 등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이전에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했으나, 내년 2월부터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개선 될 예정이며, 생애초기부터 임신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 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현행	개선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폐지(즉시 지급)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 (1~3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월~) 160만원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현행	개선
신청방식	출산후가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출산후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허용절차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기간 내 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중소기업 지원 확대

	현행	개선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출산전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원(육아휴직도 포함)
업무부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도 포함

■출산비용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

출산 후의 도움이 절실할 필요로 다동이 가정을 위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하여 다동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전에 10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출산 후 양육 지원 등 강화

다동이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2자녀(쌍둥이 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를 지원중이다.

첫만남이용권을 확대하여 다동이 · 다자녀 가구의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이전에는 출생아 당 200만원을 지원했지만, 둘째아 이상은 자녀당 3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부모급여 인상을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전에는 월 0세 70만원, 1세 35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지원했으나, 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했다.

아동수당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 중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정부지원 확대

■육아지원 3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육아휴직은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현행	개선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3회에 나눠 사용(분할 2회)	4회에 나눠 사용(분할 3회)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개선
기간	10일	20일
정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5일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사용	2회에 나눠 사용(분할 1회)	4회에 나눠 사용(분할 3회)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개선
사용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사용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됐다.

이 외에도,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며,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농도농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부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복지광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과 실천 과제



정미경
충청남도인복지관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0511호, 2012. 1. 1. 시행)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하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책무를 가져야 하

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고, 위법 및 부당 행위 신고로 인한 차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여러 문제를 시사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당연하게 여겨지며 여전히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그 책무가 체감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법 이행에 대한 강제성 결여이다. 본법의 핵심 내용에서 "OO 할 수 있다" 또는 "OO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임의적이고 권고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행에 자유재량권이 포함된다.

이는 법적인 책임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의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이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 및 도 지자체의 인건비 및 수당 관련 지침의 포괄성 부족이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처우 개선 수당 지침은 주로 정규직 사회복지사나 특정 사회복지 현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처우 개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원 기준이 월 2백6만1천원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는 올해 사회복지사 기본급(4급) 1호봉인 2백14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호봉 인정이 되지 않아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더라도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충청북도 대우수당 지침에서는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계약직 종사자나 유사한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시설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넷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나 위탁 운영 사업의 전담인력은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장에서 2년마다 신규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업무가 능숙해질 즈음에 새로운 인

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는 금전적 보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직업적 안정성 보장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고용의 안전성과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 개선 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섯째,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법률 제정 후에도 지속적인 처우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법률은 시작일 뿐이며, 이제는 그 법률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복지칼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 : 사회적 이해와 지원의 필요성



이정화

우석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필자는 현재 학생상담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이전에 남북하나재단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했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생겨난 사람들로, 결혼이민자나 이주 노동자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구성원이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는 직업의 세습과 '토대'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부모의 직업을 따르는 불합리한 구조가 존재한다.

출신 성분 때문에 개인의 미래가 제한되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조차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지며, 부모가 노동자일 경우 자식 세대도 노동자 이상의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가혹하게 지속된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남한이나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게 되지만, 중국에서도 인권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숨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된다.

이처럼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비해 남한에서는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현재 약 3만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위해 정부는 교육 및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주택·주거 지원을 받고, 심리상담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문화 및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억압적인 환경을 피해 안전을 찾으려고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초기에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주민들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간과하고,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필자가 만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립적이고 열심히 살고 있으며, 초기의 수급자 혜택보다 취업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창업에 성공한 이들 중에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회피하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전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남한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 정착할 때 가족도, 돈도, 집도 없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차별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사회 적응이 더욱 힘들어지는 현실이 있어 이러한 어려움은 그들의 정착과 자립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만 진정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 국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

어르신들의 발자취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



이다영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9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10여년을 근무했지만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던 법정 기념일이었기에, 왜 '노인의 날'이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념일은 기억하기 위한 것임으로, 노인의 날을 제정했다는 건 우리들 인식 속에서 어쩌면 어르신들의 노고와 역할이 잊혀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한길리서처에서 실시한 우리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노인 스스로도 절반 가량이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설자리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조사 결과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일할 능력이 없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 등 부정적인 단어들로 오랫동안 낙인찍혀 왔으며, 다양한 사건사고 발생 시 노인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령 운전자"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마치 연명으로 자책을 제하는 혐오 표현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 대부분의 편견이나 차별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소외 현상으로는 최근 이슈가 된 '티켓 예매의 사각지대'에 선 '노년층'이라는 뉴스 보도이다.

이 보도에서는 한 어르신인 오연 야구팬으로서 경기를 보러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온라인 예매로 마감되어 경기장 밖을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 있어 디지털 소외문제가 절실히 드러났다.

더 나아가, 택시나 기차 등 플랫폼을 활용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이 이동권에서 소외되고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소외되는 현상을 낳았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사회로 조성되었다.'

단순히 '나이 들었' 뿐인데, 어느새 세상으로부터 뒤쳐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어르신들은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

사실 어르신들은 이미 변화된 현재를 수용하고, 배우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 노력의 현장 중 하나가 바로 노인종합복지관이다.

흔히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를 즐기 위한 곳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상 어르신들의 학교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찾아와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배우며,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종사하는 복지관에서도 어르신

들이 매일 찾아와 배울 것이 없는지 묻고, "배워야 자신들과 젊은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배움에 열정적이다.

그들은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동년배를 가르쳐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동년배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놓쳤던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를 위해, 그리고 현재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막연하게 '노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과 혐오 표현에서 벗어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이 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고 있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필자는 어르신들의 발자취 덕분에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똑똑똑! 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이 딸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남편이 얼마 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채무 지급을 구하는 독촉장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하는데, 저와 제 아이들이 위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과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우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내역을 잘 모를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가장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위 상속채무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 법정상속인 중 최소한 1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위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한정승인을 하고 이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상속인 역시 상속채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관 이전 소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북도지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 116 번길 14 3층

인사동정

■ 목령중화사회복지관 > 판장 김우탁 / 9월 1일자 취임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관직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계정을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봉사단

'나우리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나우리회(회장 심재훈)는 지난 11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제45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및 가족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나우리회' 단원 11명이 참석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움직여 주었고, 점심 도시락 배분과 분리수거를 도우며 손이 되어 활동하였다.

심재훈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의미하는 '흰 지

팡이'를 기억할 것이다"며 "오늘과 같은 다양한 행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어 장애인을 위한 편견없는 시선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7@naver.com)을 통해 문의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024년 우리은행 취약계층 결혼식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전국 단위 모집) ※ 혼인신고 대상자, 사실혼 관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웨딩홀 대관 제공(우리은행 본점), 출장 뷔페 제공(300만원 내), 웨딩차 지원 등 ※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고
■ 지원규모: 24년 하반기 취약계층 최대 9개 커플
■ 지원일정: 지원 대상자 발표 후 선정 기관에서 개별 안내
■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기관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 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개인 신청 불가)
■ 참고: www.s-win.or.kr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2024 희망ON(온) 난방비(前 사랑의 난방비) 사업 안내(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

- 신청대상: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비인가 시설 제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제외)
■ 신청기간: ~2024.11.10.(일)
■ 신청방법: 희망ON(온) 난방비 공식 신청 사이트(http://www.kdhc-hopeon.com/kr/index.php) 접속 및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개인 50만원, 사회복지시설 150만원, 사회적기업 100만원
■ 선정발표: 2024.12.12.(목)
■ 지급일정: 2024.12.19.(목) 예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사업본부, 2025년 복권 기금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보강(차량 지원사업) 공고]

-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행하며 장애인 이동 증진을 통한 일상 생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미신고시설 제외) *공고일(24.10.7.) 기준으로 1년 이상 설립(등록) 또는 허가 완료된 기관
■ 지원조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기관, 장애인 이동 차량을 통한 활동이필요한 기관
■ 지원내용: 장애인 리프트/슬로프 차량 *차종: 카니발/스타리아/레이
■ 사업기간(차량구매기간): 2025년 1월~12월

신청기간: ~2024.1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s://proposal.chest.or.kr/)를 통한 접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KBS 1TV '동행' 방송사예접수 안내]

- 추천대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 의지가 높고 가족애가 있는 가정, 가족구성원 모두 방송출연 동의가 된 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18세 이상인 경우, 협의 가능), 최근 2년 이내 방송 출연 이력이 없는 가정
■ 지원금액: 2500만원 ~ 5000만원(사례별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 가능)
■ 사례추천 및 접수방법: 재단 산하 지역본부 통해 방송사예로 접수 가능여부, 접수일정 등 확인 후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상시(단, 재단 산하 지역본부별 접수방법 및 접수일정이 상이하오니 지역본부와 사전 유선협의 필요)
■ 사업기간: 2024.1.~12.
■ 참고: www.childfund.or.kr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생계·의료비 지원사업 'With You']

- 지원대상: 만18세~24세 청년(저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혜택: 월 45000원 후원금 지급, 휴대폰 보험 지원(무상), 선정 시 1년간 혜택 유지
■ 신청방법: 가입문의(070-8860-0647)→요금제 선택→요금제 가입→가입결과 제출→후원금 지급→가입유지(1년)
■ 문의: 070-8820-0647

[한국아동복지협회,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정타력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지금은 헬스 올리GO! 신청안내]

- 사업대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만 29세 이하) *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 사업내용: 의료비지원(1인 500만원 이내), 건강검진지원(1인 40만원)
■ 사업기간: ~2025년 3월까지
■ 접수방법: 사회복지기관(시설) 또는 병원(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이메일 신청(개인신청 불가)

접수기간: 상시 접수

■ 참고: http://www.adongbokji.or.kr/

[밀알복지재단, 심장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모집안내]

- 지원대상: 심장질환 혹은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받은 만 23세 이하 아동·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가정-2024년 중위소득 기준)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 지원내용: 1인당 지원금액 450만원 내 의료비, 의료제반비, 생계비 지원
■ 신청기간: ~2025.9.30.(화)까지 ※ 후원금 조기소진 시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
■ 참고: www.miral.org

[하트-하트재단,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지원대상: 행동조절이 어려워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 중위소득 150% 이내, 만 19세 이하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자에 한함
■ 지원내용: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이내)
- 치료비 입금 형식이 아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통해 진료 지원 형식으로 진행
■ 지원기간: ~2024.12.31.(화),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사회복지기관 및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신청 및 이메일 제출(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heart-heart.org

[밀알복지재단, 헬스케어센터 헬스케어룸 입소자 모집]

- 모집대상 및 입소 조건: 동반인과 입소가 가능한 전국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시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
■ 모집기간: 상시
■ 시설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48(휘경동 주공아파트 1차)
■ 이용료: 생활비 실비 부담
■ 입소기간: 14일
■ 입소 우선순위: 1순위-지방 거주 시청각장애인, 2순위-지방 거주 시청각장애 아동의 둔 부모, 3순위-수도권 거주 시청각장애인
■ 참고: www.miral.org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234-0840

▶ 학습지도, 심리상담, 지원
관리센터: 별방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421-8783

▶ 서류정리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834-3411

▶ 행정업무 보조
관리센터: 청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263-1817

▶ 초등 체육지도
관리센터: 주덕제일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856-432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 경로식당 배식
관리센터: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288-3060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충주시노인전문병원
활동기간: 11.1 ~ 11.30
전화번호: 043-855-9393

*자료출처: www.vms.or.kr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조사기간: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17일(일)
조사대상: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조사내용: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등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주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진행: (주)메트릭스알앤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부 Tel. 033-736-3566

복/지/만/평
고립
이창신 www.bokmani.com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자립이다.
그러나 어울리거나 도움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곳은 감옥이나 진배없습니다.
이게 아닌데...
더불어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